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

이상시문학상 수상자 정진규 시인

“자연의 당길 심 덕분에 시작 잘 돼”

<心>

<詩作>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의 개막과 함께 발표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는 원로시인 정진규 선생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슬픈공복’(<시인> 2009년 여름호 발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이승훈(시인 한양대 명예교수, 심사위원장) 문연 스님(시인 메주와켄리스트 대표) 한분순(한국시조시인협회장) 장경렬(평론가 서울대학교수), 장영우(평론가 동국대학교수)로 구성된 9월 21일 최종 심사를 통해 수상자로 정진규 선생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2월 1일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로 선정된 정진규 시인은 “내게 과분한 상을 받게 됐다”며 인터뷰에 응했다.

“‘이상시문학상’은 이상의 아방가르드적 문학정신을 모티브로 시 속에 녹아 흐르는 선적 경향을 오늘의 문학으로 계승하고 있는 시인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선생님의 시작품들도 줄곧 인간 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해 왔다는 측면에서 다분히 실험적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시론’을 정의하신다면 어떻게 요약 하시겠습니까?”

한 시인의 머리 위에 이상(李箱)이란 관사가 붙게 된 것을 무엇보다 먼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은 우리 현대시의 포월적 향도요, 시의 본질인 실험정신 그 자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 과연 적격자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전 작고하신 김춘수 선생이 내시를 두고 “정진규의 산문시는 이미지의 내면적 리듬, 환상의 파도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발간한 내 시집 <공기는 내 사랑>을 두고 김중립 선생께서는 “나아 들수록 시의 행갈이라는 것이 객적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의 산문체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나의 산문체 형식이 새로운 시의 형식으로서 그 실험의 성취를 보였다는 뜻으로 나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이런 국면에서 본다면 이상이 성취해낸 현대적 자각, 그런 현대시로서의 본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시론을 요약하는 말로 ‘몸詩’라는 말을 장르화해 왔습니다. 이 또한 이상의 현대성이니 이상(賞)이 지향하는 내면적 불성(佛性)의 세계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몸詩’란 전일성(全一性)의 세계, 존재론적 실체성(實體性)의 세계를 그 궁극으로 합니다. 시간과 영원, 현실과 영혼, 안과 밖의 세계가 원융(圓融)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범박하게 한 예를 들자면 우리 여성어에 ‘눈에 밝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결한 그리움을 실제화한 표현입니다. ‘그리움’은 마음이요 ‘밝힌다’는 그 마음의 동사적 실제화, 가시화한 ‘몸’을 만들어낸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몸詩’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상’ 관사 붙은 것 영광... 산문시가 성취 보인 것

이상시, 현대시 포월적 향도이자 실험정신 그 자체

“월간 시전문지 <현대시학>과 선생님의 시작 행보는 특별한 인연이 있어 보입니다. <현대시학>과의 인연과 현재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20여 년 넘게 시전문지 <현대시학>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창간 500호가 됩니다. 나로서는 하나의 종교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웠으나 보람도 컸습니다. 좋은 시와 좋은 시인들을 우리 시문학사에 성실하게 보탬과 자부합니다. 현대시학을 만드는 일 자체로서도 행복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큰 힘을 얻어왔습니다.

제 시의 긴장과 탄력을 이완의 이 나이에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현대시학>의 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늘 많은 시들, 그것도 신작들을 대하고 있고, 특

히 젊은 시인들의 시를 분별해 읽는 동안 그 비의(秘儀)의 꽃꽂이 통로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대시학>은 우리 시의 가장 대표적인 시전문지로서 모든 시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잃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제 시에서도 탄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고희의 연세에 서울 한 복판에서 월간 시전문지 주간을 맡고 계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작 감각이 첨단을 호소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요즘 시단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거주지는 생가인 경기도 안성으로 옮겼습니다. 석

연의 통로에서 저는 황홀해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에 새로운 실험정신을 빚자한 무질서한 유희와 굴절들이 흥미를 일삼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는 발효와 승화로 눈 뜨는 신생(新生)이지 무질서의 엉뚱한 해체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시들이 너무 많고 앞장서 이를 조장하는 시인들마저 있어 큰 걱정이 됩니다.

“시가 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집은 안 팔려도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시의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의 시가 국민들의 정서와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와 인터넷, 시의 문화적 저변을 넓히는 데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지 모르나 시의 본질에 상처를 내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격이 없는 남발의 천격을 보이고 있고, 시를 일종의 정보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시의 교감은 내밀한 세계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생명의 질감과 자유의 성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표피적인 통과로 그 이해를 끝내고자하고 그러한 형식으로 독해가 되지 않으면 그 가지마저 외면하는 형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를 두고 ‘읽다’고 할 때는 그 지시적 전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적 세계의 증가된 함량과 교감(交感)하는 전율의 감동을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진정한 시의 이해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있지요. 어쨌건 시는 정보의 산물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를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시단의 어른으로서 사회의 원로로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 독자의 저변이 확대돼가고 있고, 그 질적 수준도 상당해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은 바른 이해로 시를 대해주시기 바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정진규 시인.

랍니다. 시는 정보물이나 장식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겪고 있는 문화적 차원의 경계가 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정진규 시인 약력

정진규 시인은 1939년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나 안성농업고등학교와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196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나팔’이라는 시로 등단했으며, 1963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시전문 월간지 <현대시학>의 주간을 맡아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현대시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꽃피우고 있다. 한국시인협회회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시인 협회상, 월탄문학상, 공초문학상, 문화훈장 수훈, 불교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시집 <마른 수수깡의 뿌리> <매 달려있음의 세상> <뼈에 대하여> <몸詩> <견질> <공기는 내 사랑> 등 17여권을 발간했으며, 그밖에도 독일어 번역 시집, 시론집 등을 출간했다.

이상시 그림전 등 시문학축제 열려

23일 삼청동 스페이스선+미술관서, 이상시낭송회도 열려

선과 아방가르드의 만남 제2회 이상시문학축제가 이상(李箱, 1910~1937)의 탄생일인 9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스페이스선+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된 제2회 이상시문학상 수상자로는 원로시인 정진규씨가 선정됐다. 수상작품은 정진규 시인이 <시인> 2009년 여름호에 발표한 ‘슬픈 공복’. 축제의 주요행사는 이상의 시를 이미지화한 그림 전시회, 이상시의 전위와 현대성을 알리는 강좌, 이상의 대표적 시들을 향유하는 낭송회 및 포럼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상시그림전은 이상의 시들을 화가들의 자

유로운 안목으로 형상화한 독특한 형식으로 눈길을 끌었다.

조병란, 장상복, 장진 등 21명의 중진 화가들이 참여한 이 그림전은 ‘시와 그림의 만남’이라는 일반적 개념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졌다. 이상의 시들이 갖는 복합성과 난해성을 그림으로 풀어냈다는 점에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이 높은 관심을 보인 것.

이번 축제는 현대불교신문사와 계간 문예지 <시와세계>, 시와세계 작가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상시 문학선양회가 주최했다.

이은정 기자



이상문학상 수상자 발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위). 동국대 장영우 교수(오른쪽)가 이상(李箱)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0 불교달력출시 ※ 달력 1~42호 [국6절·12절·차절이·미니·다이어리·한지·탁상]

www.buddhashopping.com

창립35주년 기념 세일 달력가격 대폭인하

12월 100,000원 (100부)

7호 가을의 향기	8호 관음도	10호 동자승의 하루	11호 물소리바람소리	13호 반야심경	14호 보궁과기도서
1호 날마다 새롭게(대)	2호 내마음의 시(대)	3호 붓다의 메아리(대)	4호 산시로 가는길(대)	5호 연향이 머무는곳(대)	6호 천진미소(대)
15호 부모는중경	19호 풍경소리	26호 부처님의가르침(미니)	27호 산에는꽃이피네(미니)	29호 좋은말한마디(미니)	37호 청정(다이어리)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특별기획카렌다

- 20 성불하소서(두달) **한지 달력 150,000원 (100부)**
- 41 42 한지달력 2종 **한지 달력 150,000원 (100부)**
- 40 탁상용카렌다 **탁상 달력 250,000원 (100부)**
- 두달 달력 70,000원 (100부)

달력규격

국6절(대)	규격:30.5×31.0cm
12월	규격:25.8×26.5cm
두달	규격:25.8×26.5cm
차절이	규격: 9.0×15.5cm
미니	규격: 8.9× 9.5cm
다이어리	규격: 9.5×13.4cm
탁상	규격:26.2×19.0cm
한지	규격:30.0×45.5cm

달력할인가

국6절	1,300원 (1부)
12월	1,000원 (1부)
두달	700원 (1부)
차절이	400원 (1부)
미니	400원 (1부)
다이어리	600원 (1부)
탁상	2,500원 (1부)
한지	1,500원 (1부)

동진기획·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www.buddhashopping.com
 TEL (051)515-8888,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카드록·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051)515-8888